

‘15년 허송세월’ 어등산 사업기간 5년 연장

사업시행자·토지이용계획 유지...투자유치 의문 협상무산 후 남은 건 소송뿐...행정 신뢰도 추락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협상결렬로 무산된 가운데 광주시가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소득 없이 갈등만 남긴 채 15년을 보내고 앞으로 5년간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사업기간 만료일을 2019년 12월에서 2024년 12월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 시행자(광주도시공사)와 토지이용

계획은 그대로 유지됐다. 전체 부지 면적 273만6,200여㎡, 건축면적 3만6,500여㎡, 건축 연면적 14만3,800여㎡ 등이다. 시설 지구별 건축 연면적은 공공면적 1,800㎡, 숙박 10만3,700여㎡, 상가 1만6,500여㎡, 운동·오락 1만5,700여㎡, 휴양·문화 5,900여㎡다. 부지 기준으로는 운동·오락 시설이 161만7,800여㎡로 가장 넓다. 업체들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결국 접었던 점을 고려하면 달라진 것이 없는 토지이용계획으로는

투자업체를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사업기간을 소득 없이 허비한 채 만료일이 닥치자 부랴부랴 기간을 연장했다. 시는 그동안 산능건설·금광기업(광주관광개발)·모아종합건설·호반건설·서진건설 등과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그 결과는 사업포기나 협상결렬이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사업을 중도 포기한 기존 개발업체와 투자금 반환소송 끝

에 229억원 투자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골프장만 운영하는 업체는 골프장 순수익금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을 낳았지만, 광주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는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서진건설과도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 서진건설이 사업이행담보 성격으로 지급한 48억원 상당 당좌수표의 현금소유

권을 다루고 있다. 협약결렬 책임소재 공방은 소송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행정 신뢰도만 깎아먹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관광단지 조성은 전제로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한 상황에서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낮은 수익성 예상에 선뜻 사업자가 나설지도 불분명한 데다 수익성을 높이고 상가시설 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면 중소상인 등의 반발이 뻔한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시와 민간이 같이 하는 방법, 민간에 맡기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민생법안 처리 입장표명 요청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에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안신당, 목포서 전남도당 창당대회

운영일 위원장 선출...“통합 구축 정책정당”

4·15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구축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이 지난 4일 오후 목포 예술예당컨벤션에서 전남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전남도당 창당대회에는 운영일 전남도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유성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장, 장정숙 기획단장, 박지원 의원, 지지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대안신당 경과보고와 내빈 소개, 중앙당 창당준비위원장 축사, 임시의장과 위원장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당 위원장에는 운영일(해남·완도·진도) 의원이 선출됐다. 운영일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가 극렬하게 싸우는 와중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 보자는 취지에서 탄생한 정당이 대안신당이다”며 “뜻을 같이하

는 진보세력들이 같이 통합전선을 구축해 정치판도를 바꿀 때다”고 밝혔다. 운영일 위원장은 또 “구태에서 벗어나 ‘창조적 파괴’로 나아가야 한다”며 “끝까지 싸움만 하고 민생은 뒷전으로 저버리는 행태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와 부산, 경북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차례로 개최한 대안신당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목포=박승경 기자

시, 면허증 반납 고령자 교통카드 추첨 빈축 시민들 “복지에 수십억 쓰면서 기가 찰 노릇” 비난

광주시가 운전면허증을 가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중 일부에게만 추첨을 통해 교통카드를 지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11월 운전면허증을 가진 반납한 70세 이상 1,465명 중 500명을 추첨해 10만원 상당 교통카드를 최근 지급했다. 시는 예상보다 많은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자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통카드라도 내심 기대했던 면허증 반납자들은 보상대상에서 누락되자 낙담했다. 일부 반납자들은 ‘가장 먼저 면허증을 반납했는데도 왜 교통카드를 주지 않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낙첨자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내놓은 보완책도 되레 상실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다. 시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운전자들의 경우 오는 6월 상반기 추첨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교통카드를 반납한 한 시민은 “복지수당·청년수당 등 복지사업비로 수십억원을 몰 쓰듯 하면서 돈이 부족하다고 일부 노인에게만 교통카드를 준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반납자들이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편성된 예산 등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어 자진반납자 전원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지역 면허증 자진반납자는 2018년 202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자치단체 등이 교통카드 지급 사실을 홍보하면서 6~11월에만 7배 이상 증가했다. /황애란 기자

전남도 부동산정보 평가 최우수 ‘조상 땅 찾기’ 3만4천명 혜택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의 2019년 부동산정보 이용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정보이용분야(지적전산자료공공이용) 평가는 국토부에서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년간의 추진 실적에 대해 실시했다. 전남도는 조상 땅 찾기 등 3만4,000명, 156만필지를 제공했으며, 도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에서도 빈틈없는 행정을 추진해 고득점을 받았다. 조상 땅 찾기는 돌아가신 조상의 모르는 재산을 찾아주고 개인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등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김영민 기자

광주선관위, ‘보좌관 급여 착복’ 전 시의원 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보좌관 급여 착복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나현 전 광주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나 현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

회 공동경비 880만원을 보좌관 A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에 기부하거나 기부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 현 의원은 A씨를 보좌관으로 채용

하는 대가로 의회 공동경비를 대납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 시의회는 지난달 나 현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나 현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인 최미정(50) 민주당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비례대표 광주시의원으로 결정했다. /황애란 기자

정기 브리핑

장병완 “광산업기관 지정 광주 미래성장 동력”

대안신당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이 광주 광산업의 빛을 밝혔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주의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한국광기술원을 광융합기술진흥 전담기관과 전문연구소로 각각 지정·고시했다. 광산업진흥회는 광융합 기술진흥을 위한 산학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광융합산

업 정책수립, 정보제공 및 인력양성 등 기업 지원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 한국광기술원은 광기술 개발 기반지원과 기술표준화 등 광융합산업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광기술 전담기관·전문연구소 지정은 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소위원회 기밀위원장이던 장 의원이 제정·통과시



킨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장 의원은 “이번 전담기관 등의 지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시대 광주 미래성장 동력이 착각 마련되고 있다”며 “광융합기술 개발과 진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청신호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5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1~2025)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에 청신호가 쬐였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여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

업 선정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31일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을 선정,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여수~남해간 국도 77호선 사업을 길이 7.31km에 폭 4차로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12억원 규모로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을 하루빨리 개통시켜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개통에 이어 동서화합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지방도시간 ‘상생모텔’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해저터널을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은 기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ICT 쇼핑 플랫폼

골프장에서, 생활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제품을 큐빙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엑스페론이 만든 Vending Machine

www.xperon.co.kr 문의 TEL. 02-2070-5009